

\*\*\*\*\*  
**고전명화의 감상**



지오바노 벨리니작. 사막을 걷는 성 프란시스. 1485. 판넬에 유화 및 템페라 (124×141.7cm). 뉴욕 프리콜렉션 소장.

● **이영재 / 미술평론가**

지오바노 벨리니의 그림에서는 플랑드르 회화의 전통이 보다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벨리니는 비교적 늦게 성장한 화가라고 할 수 있다. '사막을 걷는 성 프란시스'란 그림의 경우도 그의 말년에 제작된 그림으로 여겨진다. 그림 속의 성자는 배경에 비해서 비교적 작게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향해서 신비롭게 감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성자는 교단을 뒤로 한 채로 성스러운 대지를 향해 맨발로 서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 앞에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벨리니 그림은 윤곽선이 당대의 그림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사용되었으며, 색채는 보다 부드럽우며, 빛은 보다 밝은 모습을 띠고 있다. 플랑드르의 화가들처럼 벨리니 역시 자연 속의 사소한 세부 모습까지도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플랑드르의 화가들과는 달리, 벨리니는 풍경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공간적 관계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전경에 있는 바위들

의 형태는 구조적으로 분명한 모습을 띠고 있고 또한 단단하게 보이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과학적 원근법을 회화 속에 어렴풋이나마 실현시키고자 하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벨리니는 당대에 베니스의 가장 훌륭한 화가로서 많은 제단의 벽화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벽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1505년에 제작한 자카리아의 마돈나와 성자가 있다. 이 벽화에서도 벨리니의 스타일은 잘 나타나 있는데, 다른 화가에 비해서 그는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 벽화에서 마돈나의 모습은 견고한 형태로서 빛원의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천사가 음악을 켜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아마도 벨리니 이전에 유명한 화가였던 마사치오가 그렸던 마돈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벨리니 역시 르네상스의 불결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던 시기의 화가로서, 그의 화풍은 마사치오와 마찬가지로 중세시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었다. 마사치오와 마찬가지로 그의 그림은 보다 원근법적 표현에 충실하게 되고 인물들도 상징적이라기 보다는 매우 사실적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벨리니 그림이 마사치오를 비롯한 당대의 화가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보다 더 공간감을 띄고 있으며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의 그림을 보면 말로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의 그림에서는 모든 수사학적 표현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풍부한 감성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베니스의 거장들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벨리니의 그림에서는 그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화면의 극단적인 대비가 굉장히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빛과 그림자들은 거의 느낄 수 없는 미묘한 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색채들은 보다 풍부하고 깊이있는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사가들은 흔히 벨리니를 두고 15세기의 플로렌스의 거장 마사치오와 북구의 거장 얀 반 아이크의 화풍을 적절하게 이어받은 거장이라고 말하곤 한다.♣

**전시회 정보**

- 채기선 개인전 / 12. 6~12. 12 / 단성갤러리
- 왕문현 개인전 / 12. 7~12. 13 / 문화일보갤러리
- 조재연 개인전 / 12. 13~12. 19 / 서경갤러리
- 유충렬 개인전 / 12. 13~12. 19 / 이십일세기화랑